



心實愛世
攝信慈度

본회는 동문상호간의 우의증진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1976. 10. 15. 등록번호 라-2143호·월간·비매품)

東友會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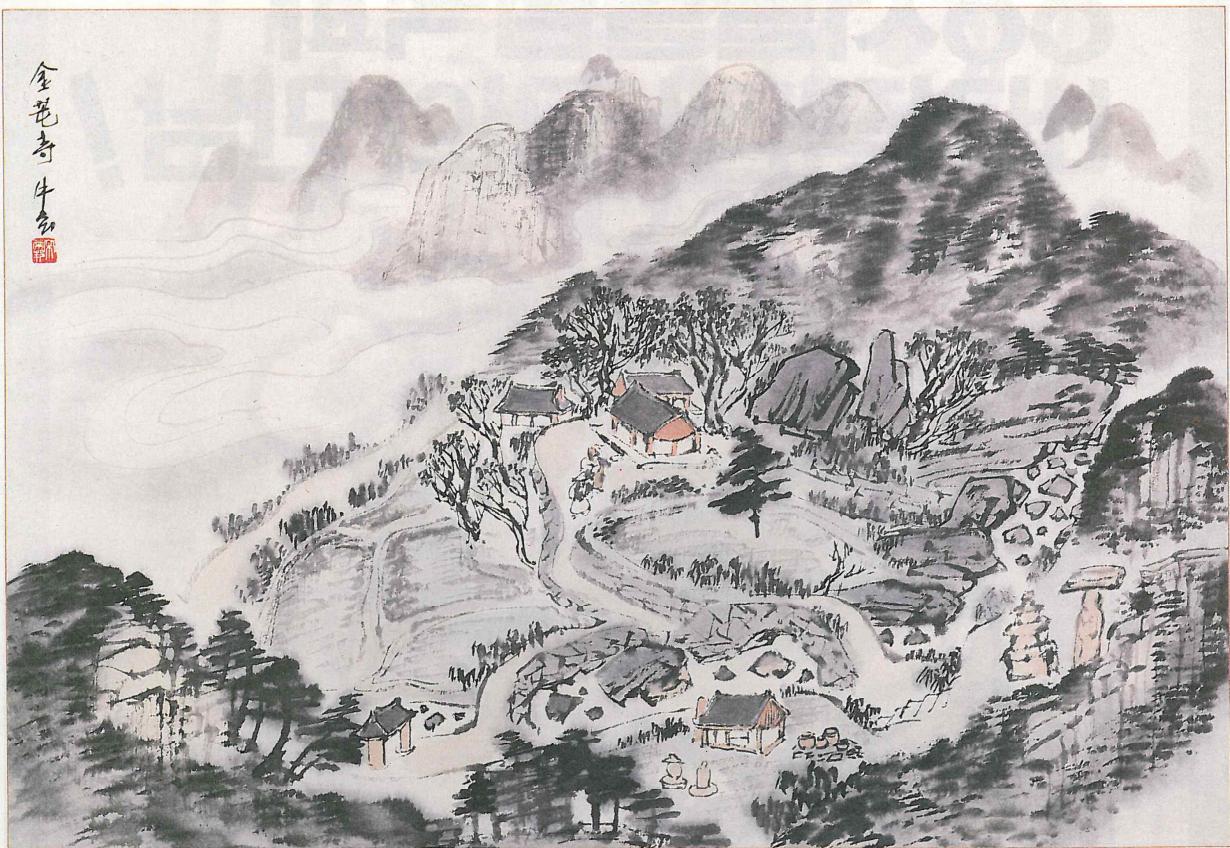
1988年(檀紀 4321年) 7月 30日 第 134號 [1]

발행인 鄭申盧 在哲炫容
편집인 인재인

東國大學校總同窓會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2-18
성화빌딩 12층
전화: 733-3993(代)
733-3991, 3992, 3993

우편대체: 012328-31-525669
은행지로번호 7500851

金菴寺 牛玄



● 金菴寺

牛玄 宋榮邦 그림 (1988년 초여름·53×36cm)

우리네 산하는 바위 하나, 나무 한 그루조차
꼭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
언제 보아도 장하고 아름답다.
미륵불과 석탑, 줄지어 서있는 산봉우리들,
그리고 한껏 여유있는 산사의 정적.
여름풍경이 신선하기만 하다.

동문장학금을 알아본다 ① - 동국 70주기념 장학금/4
앞서가는 동우회 - 東英會/8
모교자매결연대학 현황/9
클로즈업 - 뉴욕대에 한국과학 설립한 박성배 동문/10

80년 東國人脈의 산 기록

『동국인명록』 발간에 귀동문의 근황을 알려주십시오

1908년 명진학교 졸업생부터 최근 1988년 졸업생에
이르기까지 동국인맥의 산 기록으로 남을
『동국인명록』 발간작업이 각계 동문과 동우회의
협조속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본회 88년도 역점사업인 『동국인명록』 발간작업은
전 동국인의 현주소와 직장 등 근황을 정확히 등재,
금년 12월중으로 제작완료해 선보일 예정에 있다.
보다 많은 동문들의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각계 동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

東友會報

'88 서울올림픽과 버거잭햄버거의 만남!



햄버거 전문업체 버거잭이
'88 서울올림픽 전경기장 매장영업업체 및
대회운영요원 급식공급업체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품질우선, 위생우선,
서어비스 우선에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버거잭은 대회기간 ('88. 9. 17 ~ 10. 2) 중 올림픽 캠퍼스,
올림픽파크 및 축구예선이 있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부산수영만
요트경기장 등 전 경기장 내 64개 매장에서 양식부문 영업업체로서
여러분과 만나게 됩니다.
아울러 대회 운영 요원의 영양가 높은 급식을 위해 햄버거 및
양식세트도 공급합니다.

■ 가맹점 모집안내

신청접수처: 직접내사 상담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86-7
버거잭 프라자(본사)

● 대표전화: 545-8201 (주)버거잭 코리아

Burger JACK's

慶州支部 정기총회 열려

조직 강화로 발전기 반 마련키로

새會長에 李根雨동문...임원 개편도

경주직 활동창회(회장=朴廣度)는 지난달 20일 정기총회를 열고 새 회장에 李根雨(63·경제·사업) 동문을 선출하는 등 신임 회장단을 출범시켰다.

同會 회장단은 최근 졸업한 동문들을 대거 참여시켜 선후 배간의 조화를 이루어 회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는데 이날 신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주지구 동문들의 단합을 바탕으로 동창회관과 장학기금 모금 및 조직 강화에 주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새 회장은 영남지역 동문제육대회와 동국인의 밥상을 활성화시켜 나갈 것과 경주캠퍼스 재학생 위한 각종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동회는 지난 29일 23명의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이사회를 갖고 경주직 활동창회의 발전적 기반 조성에 대해 폭넓게 협의, 동회발전에 다각화 노력할 뜻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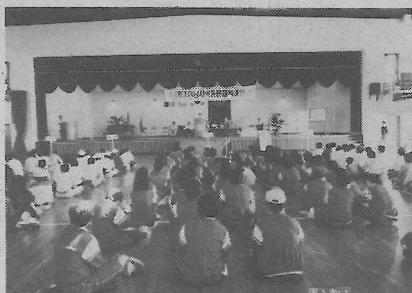
경주직 활동창회의 새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부회장=金德壽(65정·고려조경(주) 대표)孔在鴻(67경영·홍일설업 대표)金正鎬(75경제·동해탁 대표)李相基(83경제·모교 한의대 교학과)김재일(86행원·내사고교장)이인환(86교·경주종교 교사)전덕균(87법학·(주)동영산업 감사)

▲사무국장=章鉉秀(78미술·학원업)

▲총무부장=김운락(88회계·사업)

▲재무부=손봉식(87법학·민



△경주직 활동창회 등이 매년 개최해 단합을 도모하는 영남 지역 동문제육대회.

정당 경주청년부부장

▲조직〃=김경익(87조경·도 투라월드)
▲홍보〃=김종현(88경영·선

경광기획)

▲장학·체육〃=김종성(87국사·원화예고 교사)

물리과 洪致裕회장 선임

물리학과동창회(회장 朴重植)는 신임회장에 洪致裕(63년 졸·모교 이과대학장) 동문을 선출했다.

동회를 이끌어갈 洪致裕신임 회장은 모교 대학원서 이화박사 학위를 받았고 모교 교수·美術ックス大 교환교수·모교자연과학연구소장·과학관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본회 이사로도 활동중이다.

한편 동회는 동창회 기금을

3천만원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주력할 계획을 밝혔다.

54同期會 정기모임

54政治科同期會(회장=許潤秀) 정기모임이 지난 달 30일 오후 7시 종로 4가 동보석서에서 열려 동문간의 친목을 다졌다.

모교人事

학생처장에 宋在雲교수
총무처장에 尹賢普교수



▲宋在雲교수



▲尹賢普교수

宋처장 本會 부회장으로

모교당국은 최근 학내 문제 해결에 따른 인사이동을 단행하고 학생처장에 宋在雲(64철학) 국민윤리학과 교수를, 총무처장에 尹賢普(전자공학과) 교수를 각각 임명 발령했다. <모교 인사이동 5면>

이에 따라 신임 宋在雲 학생처장은 전임 李瓊雨 학생처장에 이어 본회 담당직 부회장직을 승계해 14대 부회장에 보임됐다. 신임 宋在雲 학생처장과 尹賢普 총무처장의 약력은 다음과 같다.

△宋학생처장=▲64년 모교철학과 졸업▲85년 모교대학원 철학박사▲인천대 대학원 공학박사▲한국교수협회 전자공학과 교수▲모교 교수

△尹총무처장=▲64년 학생회 졸업▲82년 인하대 대학원 공학박사▲한국교수협회 전자공학과 교수▲모교 교수

東友漫評

鄭 雲 耕



本會 美洲支部 방문

救農東友會 定總 예정

8월 7일 동원농장서

救農東友會(회장=尹允河)는 오는 7일 정기총회 및 보신탕내회를 경기도 학성군 만월면 동원농장에서 열 예정이다.

그간 주민 한 사람을 통해 구

농동우회의 장학사업에 관해 협의하고 이를 위한 준비작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현재 동회를 이끌고 있는 임원에는 부회장에 李澤魯(70동경) 이동수(73임학) 동문, 총무부수사 鄭文煥(71행정) 부총무부수사 주간▲총장비서실장

△尹총무처장=▲64년 학생회 졸업▲82년 인하대 대학원 공학박사▲한국교수협회 전자공학과 교수

△모교 교수

알프스등반대 격려

鄭在哲회장 후원금 전달, 성공 빌어

본회 鄭在哲회장은 지난 4일 사무국에서 동국알프스등반대의 예방을 받고 이번 해외원정등반의 장도를 격려하고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동국산악회 鄭鎮永회장과 李仁頤부회장을 비롯, 趙龍在(72정외) 원정대장, 안규성(82건축) 등반대장 등이 참석했고, 모교 宋在雲학생처장, 본회 회장단의 金聖涉, 申曉蘭, 普圭生부회장과 南基一감사 등이 배석해 알프스등반대와 오찬을 함께하며 이번 등반을 격려했다.

모교 산악부 창립 30주년을 기념하고 히말리아 등반을 대비해 실시되는 이번 등반은 동국산악회 소속 동문 3명과 모교 재학생 6명 등으로 구성된 東國알

프스등반대에 의해 7월 16일부터 34일간 유럽알프스 일원에서 있게된다.

한편 동국알프스등반대는 지난 12일 오후 1시 모교 교수세미나실에서 발대식을 갖고 16일 오후 항공편으로 유리히로미나 현지 등반에 나섰다.

全北支部 사무실 개설

전주시 경원동 1가

全北支部同憲會(회장=金三龍)·원광대교양교총장은 회활성화를 위해 최근 지부 사무실을 새로 마련했다.

同支部의 새 주주는 전주시경원동 1가 2-14 동국대학교동창회 전북지부, 전화번호는 (0652) 83-02899이다.

경영과동창회 理事會

獎學基金 모금결의



경영학
과 동창회
(회장=白正基·삼일
상무 대표
·사진)는
지난 19일
이사회를

열고 白正基회장을 재추대하는 등 현 임원진을 전원 유임으로 결의했다.

趙熙榮(63경영) 모교 교수를 비롯, 金鏡元·申무국장 등 同會理事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해부터 모금운동을 펼쳐온바 있는 경영과동창회 장학금의 확충을 위해 同會 장학위원회를 중심으로 금년도 모금운동을 추진하기로 하고, 장학금 지급계획에

이 장학금은 한국투자신탁에 주식형 장기부자로 적립과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학생에게 모범이 되는 동과 재학생에게 지급하게 된다.

이 장학금은 한국투자신탁에 주식형 장기부자로 적립과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학생에게 모범이 되는 동과 재학생에게 지급하게 된다.

학과·동기별 공문발송

「人名錄」補正 위해

本會는 「東國人名錄」補正을 위해 지난 18일 각학과별·동기별 명부를 발송, 동문현황파악을 목표했다.

각학과별로 본회와 연락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동문들을 대상으로 발송한 이명부는 현재 본회가 추진중인 동국인명록의 수정·보완작업에 큰 도움을 줄것으로 기대되는데, 주위 동문들의 주소나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8월 13일까지 본회 사무국으로 회송하면 된다.

광고接受

“동국가족의 廣告協賛을 바랍니다”

본회는 「東國人名錄」에 실을 동문기업의 광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발간에 잡인 「東國人名錄」은 각대학별·연도별로 동문들의 현 주소·직장·전화번호 등이 상세하게 등재되어 동국가족의 긴밀한 가교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본회발전에도 큰 힘을 차지하는 듯 깊은 기록입니다.

「東國人名錄」과 함께 영원히 기록되고 기념될 수 있는 동문 여러분의 협찬광고를 기대합니다. 「東國人名錄」 발간에 적극적인 성원 있으시길 바랍니다.

◇接受期間: 1988년 10월 31일까지

◇接受 및 問議處: 본회사무국 전화 733-3991~3

東國大學校 總同窓會

동문 장학금의 活性化를 기대하며



모교의 침체 역시 이 차원에서 보면 「인재양성」의 소홀에서 온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아닐듯 싶다.

자기 자신에게 충실히 고 주위에 불사하고 기여할수 있는 「인재」를 많이 배출했을 때 교육의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대학의 위상은 올바른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회가 추진 중에 있는 「東友獎學財團」 설립 움직임은 매우 뜻깊고, 모교발전을 위해서도 고무적인 사업이라는 생각이다.

장학재단의 설립 자체가 반드시 「동국발전」을 가져온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이 파급시킬 교육의 질적향상이라든지 면학여건의 조성등의 효과는 「인재양성」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또한 동문들의 성금으로 조성되는 장학재단이 모교 재학생들의 실력향상에 이바지하여 「인재양성」에 조력케 된다는 점은 결국 「동국발전」교과 맥을 같이하는 의미깊은 모교지원사업이 될 것이다.

물론 그간 동국70주기념 장학금이라든지 각과별 동문장학금, 근로장학금등 후배들을 위한 장학지원은 계속되어왔고, 수혜의 폭을 넓히기 위한 장학금 확충 노력 역시 동문사회에서 한층 고조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기도 하다.

이같은 동문들의 장학 지원 움직임은 신정한 「동국발전」에 부응하는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재분의 여지가 없을 뿐더러, 바로 여기에 동문들이 그토록 엄원해 하던 모교 발전의 실천적 노력은 가시화될 수 있다고 본다.

머지않아 본회에서 발족된 「東友獎學財團」은 이러한 면에서 매우 희망적이다. 이 재단은 「동국발전」에 소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수 있도록 동문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기대한다.

오래전부터 제기돼온 것이라 東國人 모두에게 새 삶스러울게 없는가운데 하나가 「동국발전」이라는 말이다. 더욱 시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때 「동국발전」이란 말은 너무나 빨리 혹은 빛 좋은 개살구처럼 적용되는 감마저 들에도 있는게 부인 할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또 하나의 연역은 사실은 모교발전의 당위성이 있다.

솔직히 얘기해 를 만큼 모교발전의 당위성이 역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할만한 「동국발전」이 없었던 것이다. 없었다가 보다는 여타 대학의 그것과 견주어 블며 뒤떨어진 것으로 보는게 타당하고 현실감 있는 진단일듯싶다.

최근 모교는 「동국발전」이란 문제에 또 한번의 큰진통을 치렀다. 교수와 학생·모교당국뿐만 아니라 전동문을 비롯해 학부모까지도 관심과 우려를 표시했을만큼 동국가족 모두는 「위에박힌 말」을 다시한번 되새기게 됐다.

결국 모교의 발전은 동국인 각자가 자신의 역할에 책임있게 일하며 실질적이고 주체적인 노력 을 기울여야한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고 다짐하는 새로운 계기였다.

원론적인 얘기겠지만 여기서 우리 모두가 한가지 생각해 볼것은 대학교육의 목표이다. 굳이 전문적인 해석을 앞세우지 않더라도 쉽게 이해되며, 「동국발전」이라는 대명제와도 맥을 같이 할수있는것은 바로 「人材 양성」이 아닐가 싶다.

즉, 훌륭하고 유능한 인물을 키워내는데 그 목표가 있다고 보겠다.

人材養成 이란
측면에서

동문獎學財團의
발족은

모교
발전에
기
요
해

82년 역사속에 民族私夢으로 성장해온 모교가 지금 제2의 도약을 위한 용기를 잡고 있다. 그러나 대학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학생들이 학문장진에 전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후배 재학생들이 학문장진에 전념하는 것이 학교발전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그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노력이 뒤

따라야 하며 그중 하나가 同門들이 지하급은 장학금이라 할수 있다. 현재 모교생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각종 동문장학금의 실태를 재점검 하면서 그동안 선배동문들이 기울여 왔던 후배들에게 대한 애정을 살펴보고 앞으로 동문장학금시리즈를 마련하였으며 그첫번째로 「東國70주기념장학금」을 달라고 자한다.

東國愛로만든同門장학회

동문장학금을 알아본다 ①

東國70周紀念 奬學會

현재 「東國70주기념장학회」의 입원 및 지난 88년 1학기의 장학금 수혜자명단은 다음과 같다.

기금증식으로 보다 많은 학생에게 혜택 주어야

◇임원명단

▲이사장=李智冠
▲부이사장=文泰植 宋在雲
▲이사=柳根昌 金東正 金聖涉 洪淳浩 黃慶石 申益炫 邢基柱 樊世和
▲감사=金弘燦 尹鍾安
◇88년장학금수혜자
▲김기범(법학2)
▲김봉식(행정2)
▲허태현(토목4)
▲이윤진(지교3)
▲김종숙(미술3)
▲권미정(교산공3)
▲이남희(경주영문3)
▲유민재(경주수교4)

지난 76년부터 本회가 모금운동 전개하여 設立

「東國70주기념 장학회」는 개교 70주년인 지난 76년부터 본회가 본격적인 모금운동을 전개하여 지난 80년에 발족된 것으로 지난해 모교생 8명에게 50만원씩을 지급하기까지 그간 총 20회에 걸쳐 5천 3백 20만원이 후배들에게 전달되어 모교의 장학사업에 큰 기여를 해왔다.

본회는 지난 76년 4월 24일 보다 영광된 東國中興의 기치를 높이 들고 全東國인의 힘과 지혜를 결집시키기 위해 당시 崔載九동창회장을 위원장으로 柳根昌, 鄭在雲, 金準鏞 등문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동창회 장학기금 조성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해 10월 7일 장학기금조성을 위한 각급단위 회장 및 총무연석회장을 개최하는 등 장학기금마련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夙東國人운동으로 절쳐졌던 이 강학사업에는 1천 5백여명의 동문이 참여하여 2천 6백

여만원을 조성하는 東國愛를 발휘했는데, 마침내 80년 1월 4천 4백 14만 9천 42원(동문, 교직원이 직접 학교에 기탁한 1천 7백여만원포함)을 기금으로 추진해 설립한 奬學會가 「東國 70주기념 장학회」이다.

70주장학금은 80학년도 1학기부터 1인당 5만원씩 지급됐는데, 84년에는 20만원씩, 85년부터는 50만원씩으로 확대지급되어 오고 있으며 장학금 수여기준은 견학이념을 구현하고 모교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자녀에게 하비조달이 어렵고 품행이 단정하여 전학기 성적이 B 이상인 학생이다.

「東國70주기념장학회」는 지난 85년 6월 12일 별도로 운영돼 오던 「東國獎學金」 1천 2백여만원을 인수 합병하고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지급과 기금증식을 해오고 있는데 88년 3월 현재 잔액은 7천 5백 7십 7만 9천 1백 63원이다.

성적이 우수하고 생활이 어려운 모교생에게 지급

그동안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회열을 고취시키고 모교발전에 기여해온 「東國70주기념장학회」는 앞으로 보다 많은 모교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실상부한 전제동문의 장학단체로 활성화되길 기원합니다.

本會來訪

▲盧重根 (65商學, 會計士)▲
趙椿煥 (74경영, 세우통신공사사장) ▲秋東憲 (65대원, (株)동서양대표이사)▲趙慶成 (52경체, 대일대리점대표)▲孫榮燮 (52경체)▲張亨植 (60정치, 금강특수인쇄(株)회장) ▲申鉉模 (84교원, 학기)▲金允鍾 (73정외, 신성금고제작소상무)▲金上鉉 (64생물, 삼원사)▲趙永允 (64법학)▲
趙吉衡 (81경영)▲채규민 (62정외, 在美)▲유영수 (60영문, 在美)▲강그레이스 (58국문, 在美)▲李鶴齡 (87건축, 시사영어사)▲
金學水 (88경영, (株)금호)▲
河鍾九 (84화학)▲李成範 (62국문, 선보역 역무과장)▲南相教 (55경체, (株)대왕지도부장)▲
李英浩 (84선학, 하와이거주)



東明印刷社

서울特別市 中區 春洞 2街 61-16
TEL: 266-6323, 267-6313

咸北道知事에 취임

池昌勳 동문



詩集「동경까마귀」펴내

金長好 東문

중신 시인

金長好(58국

문·교교수·

필명周潮)

동문은 제 6

시집「동경까

마귀」를 출

간했다.
지난 84년 東京大 外國文學
연구소에 피격된 1년동안 쓴
20편의 연작시 「동경까마귀」를
중심으로 엮어진 이 시집에서
금동문은 관동대진재등 韓日판
계사의 오음을 협상화했다.

세무학회 초대회장

尹鍾安 東문

尹鍾安(59
경제·교교
수·동문은지
지 5일 열
린 한국세무
학회 창립총
회에서 초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尹동문은 무교 경상대 회계
학과 교수로 활동중이며 현재
경상대학장을 맡고 있다.

전북 지부

任實君...河廣善동문

金堯君...金基奎동문

長水君...郭正勳동문

통신공사...安鍾烈동문

▲河廣善(59경제)동문=전북
장수군수에서 임정도로 영전
했다. 전화 0673-42-2310

▲金基奎(61경제)동문=전북
정읍군수에서 金堯君수도 자리
를 물었다. 전화 0658-2-4111

▲郭正勳(62경제)동문=전북
도청 민방위국장으로 재임하다
장수군수로 영전. 전화 장수 4-
2146

▲安鍾烈(63법학)동문=전기
통신공사 전북지사장으로 취임.
전화 0652 83-0001

시청 가정복지과장

李相鎮 東문

李相鎮(63
정치)동문은
지난달 29일
자로 시청가
정 복지과장
에 부임했다.
세종문화회관

池昌勳(52경제·본회이사)동
문은 지난 1일자로 합경북도지
사에 취임했다.

한부 城津 출생인 池昌勳은 자
유민주수호연맹 사무처장으로 재
임해왔으며, 국회부의장 비서실
장과 철도청 차제국장들을 거쳐
홍익대 간접을 지낸바있다.
惠東會회장을 맡아 동문들에
게 친숙한 池동문은 본회이사
로도 활동중이다.

서무과장으로 재임해온 李동문
은 관계에 놀랄마운 이래 서
울시 교육담당관·총무과 차장
수석비서실사무관·비서실장신서
기관들을 역임했다.

서울시청 과장승진

金實 東문

金實(62법학)동문은 최근 서
울시청 한강관리사업소 과장으
로 승진했다.

[한국天台思想]...출간

李永子 東문

李永子(63
불교·교교
수·本會 理
事)동문은 최
근 전태사상
의 수원·전개
과정을 규명
한 「한국전태사상의 전개」(민족
사학)를 출간했다.

교고 불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李동문은 지난 82년 일본
大正大學서 문학박사학위를 취득
했고 교고 교수·여학생 강등을
지냈다.

부이사관 승진

閔丙哲 東문

閔丙哲(66상학·본회이사)동
문은 지난 1일자로 국제문화
연구소 과장(서기관)에서 부이
사관으로 승진 인사했다.

(주)開元開發 설립

尹天泳 東문

尹天泳(66
농학)동문은
최근 (주)開
元開發을 설
립, 대표이
사에 취임했다.

본회 사무국장을 역임하고 서
울고속디지털(주) 기획조정실장
운영부부장 등을 지낸 尹동문은
이업체에서 운송·건설업을 취
급한다. 송파구 잠실동 191-7 은
성빌딩 301호 전화 422-6655,
419-4488.

원풍금속(주) 확장 移轉

金眞植 東문

金眞植(67농학)동문은 지난 16일
동사 회장을 확장이전하고 개업식을
가졌다.

金동문은 재화시 농연부장을

최고 년 13.05%의 수익률 보장!

CP는 가장 높은 수익을 보장합니다.

금액·1.000만원 이상 만기·90일 이상

한국 투자·증권 이래
대한투자금융
DAIHAN INVESTMENT & FINANCE CORP
서울명동네거리 투자상담 777-4491
대 표 771 06



지냈고 前주승우회장을 역임
한바 있다.

동아시인 朴提千(68국문·문예

진흥원 흥보출판부장)동문은 최

근 시집 「莊子詩」 2권을 (문학

사상사학) 출간했다.

이 시집은 오래전 자비출간

했던 「莊子詩」에 새 시편들을

보완해서 복판한 것이다. 재학

시집 「莊子詩」에 새 시편들을

단위東友會 회원명단 속속답지

7월말현재 38개 각급 단위東友會에서 東國人名錄 발간작업에 기초가 되는 「회원 및 일원현황카드」를 본회로 보내온다. 동문현황파이에 협조해준 각지부·지회에 감사드린다. 이직까지 회원명단을 보내지 않은 東友會에서도 원고마감 일인 8월31일까지 본회로 우송해주시기바란다.

*명단보내는 東友會

◇地域別

<大邱=慶北支部>

▲회장=하영태 (58법학) 유신 무역주식회사 대표이사 (053) 632-2211 ▲서수부회장=박당식 (62정의) 대구우주주식회사 대표이사 (053) 425-9500 ▲부회장=박길조 (65경계) 삼덕여자직공 업사 대표 (053) 352-1516, 오남수 (65 경계) 민자강상비교 (050) 46 0100, 이종기 (71경영) 고려중합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053) 752-8181, 이구현 (85화의) 광덕한의원장 (053) 22-2399 ▲감사=구교현 (64법학) 대우시경, 경무제강 (053) 44-9010, 흥기의 (70경제) 삼우상호신공금고 (주)상무 (053) 422-7001 ▲총무=김상준 (70정외) 대학당인쇄사 대표 (053) 72-0245 ▲부총무=우수상 (85법학) 기아산업주식회사 사서대구지점 (053) 54-8771

<店村·聞慶支會>

▲회장=元容石 (58생물) 광동 기계상사 대표 (0581) 2-3300 ▲총무=耀熙 (66상학) 한전상사 대표 (0581) 2-3266 ▲간사=박근秀 (68경영) 한남습교 대표 (0581) 2-6279.

<仁川支部>

▲회장=金殷夏 (52정치) 須국부의장 (032) 883-8888 ▲회장=張熙熙 (49문학) 린나이 가스보일러대리점 (032) 934-36 51 ▲서수부회장=金奉教 (52정외) ▲부회장=洪性亮 (63경영) 우련통운총무이사 (032) 72-6115, 皋然復 (64 법학) 대한증설공사 인천사무소 (032) 6086, 韓柱澈 (56화학) 대현공업전문교과 수 (032) 423-6742, 李準兩 (72정외) 동성석유 (주) 대표이사 (032) 72-3331, 金基光 (63영화) 동양 영업 대표 (032) 984-5897, 金永善 (63법학) 배조우아원 원장 (032) 421-3366 ▲총무=李正元 (68 경계) 동양화재해상보험 (주) 인천영업소장 (032) 72-4082 ▲감사=金昌洙 (65경영), 申光烈 (59국문)

<全北支部>

▲회장=金三龍 (56불교) 원광 대학교총장 (0653) 52-6111 ▲부회장=李丙求 (55정치) 전북도정식수과장 (0652) 84-8463, 劉成鍾 (61정치) 전일시민센트럴상사 대표 (0652) 83-2084 ▲총무=金容夏 (63상학) 전광공사 임실태지점장 (0673) 43-3630

<全北群山支會>

▲회장=金良善 (41 사학) 산 중원고등학교교장 (0654) 62-9109 ▲부회장=申在鉉 (61 영문) 전라교 고교 (0652) 4-4502 ▲총무=文根鉉 (61법학) 만물영양센타 (0654) 2-5314

<全北裡里支會>

▲회장=朴沈植 (49 국어) 원광 대학교 교수 (0653) 52-2111 ▲총무=裴士烈 (73 경계) 신한탁금은

방대표 (0653) 2-2140

<江原春川支會>

▲고문=유우수 (52영문) 강원 도교외 학부국장 (0361) 53-5321 ▲회장=이동석 (53정치) 강원연 탄 사장 (0361) 54-7531 ▲부회장=김영하 (51경계) 춘천합동주 조장 대표 (0361) 54-2481, 변태 원 (63법학) 대우운수사장 (0361) 54-2450, 이해승 (63경계) 소암 부동산사무소 대표 (0361) 54-47 32, 정광자 (67공학) 산성전자총 전대리점대표 (0361) 52-8444 ▲총무=이시천 (82무역) 춘천 MB C 보도국 기자 (0361) 54-4560

<天安支會>

▲회장=權蔭五 (75행원) 해 전 대학교수 (0417) 32-4429 ▲부회장=姜大鳳 (63상물) 삼화회관 대표 (0417) 62-3545 李鎬墮 (71 경계) 성신제재소장 (0417) 4-32

38개 支部·支會에서 명단 보내와

회원현황, 東國人名錄 제작에 "기초자료"

25▲총무=吉俊根 (62국문) 천안 중학교교사 (0417) 63-0243 ▲감 사=金允浩 (62국문) 예총 천안 지부장 (0417) 62-1613

<平澤支會>

▲회장=柳炳官 (60정치) 평택 민통위원회위원장 (0333) 52-57 00 ▲부회장=文錫煥 (59생물) 한 강여자중학교 교감 (0333) 2- 2577, 李英權 (73현역) 청담고등학교 서무과장 (0333) 53-9100 ▲총무=宋承萬 (66경계) 기방재 (주) 대표이사 (0333) 52-3456

<在京嶺東友會>

▲회장=김병운 (55법학) 한국 산업교육연구원 원장 734-4537 ▲간사=최정수 (65상학) 산하회 계법인 회계사 733-2345 ▲부간사=장민수 (77농경) 강원산업 (주) 종합기획실과장 730-7111

<職場別>

▲롯데그룹 종합연구소 ▲회장=김우진 (68 경계) 개발과장 634-0171 ▲총무=한구현 (78 식공) 스틱연구과 대리 634-0171

<東洋火災 海上保險(株)>

▲회장=楊潤基 (70상학) 남부 지점 756-6165 ▲간사=吳慶煥 (80농학) 대리점 영업부과장 777-8364

<한국투자신탁>

▲회장=정율당 (63경계) 청량리지점장 963-5574 ▲총무=손세령 (72법학) 계리부과장 785-1212 ▲간사=한상천 (79경계) 운용부 대리 785-1212, 유병택 (36세경) 저축부 785-1212

<(주)예산>

▲회장=한세기 (67행정) 벽산 금속분부장 273-6961 ▲총무=이육동 (84영문) 총무부과장 273-9211

<한국증권 대체결제(주)>

▲회장=이정모 (62경계) 상무 이사 785-5311 ▲총무=하진수 (65정치) 감사장 785-5311

<농수산물유통공사>

▲회장=손명호 (72공학) 과장 794-0594 ▲총무=노종오 (84경 영) 사원 793-9310

<태평양화학(주)>

▲회장=김형국 (62정외) 연수

원장 794-4550 ▲부회장=장웅조 (64경계) 미용부강 795-8851 ▲감사=김영남 회원관리부장 795-8351 ▲이균영 (84경계) 중대장 795-8351

<철도청>

▲회장=李贊澗 (53법학) 수색 역장 720-3871 ▲총무=崔安雄 (70경계) 경리국 행정사무관 392-1945

<국토개발연구원>

▲회장=吳錦慶 (61법학) 수석 연구원 784-2569 ▲부회장=方秉武 (69경계) 기획과장 784-25 60 ▲총무=崔成玉 (82전산) 연구원 784-2560

<산림청>

▲회장=황의현 (84행원) 비상 계획 담당관 962-5210 ▲부회장=최경 (68입학) 입업연구사 961-25 62

<산림청>

▲회장=黃的衡 (84법학) 비상 계획 담당관 962-5210 ▲부회장=方秉武 (69경계) 기획과장 784-2569 ▲총무=白基順 (76국교) 409-25 62

<진선여고>

▲회장=白太원 (69국문) 567-7839 ▲총무=白在根 (73교과) 567-7839

<경상대학교>

▲회장=宋宗浩 (58경계) 경제 학과교수 54-8331 ▲총무=정호

중학교장 363-2906 ▲총무=곽 재희 (66경영) 인창중학교 교사 363-2907

<명성여고>

▲회장=金澤珍 (58수학) ▲총 무=김상숙 (76대원) 이승희 (63국 문) ▲감사=허동선 (77사회) ▲간사=오백선 (77국문)

<명성여중>

▲회장=金澤榮 (66불교) 446- 5574 ▲총무=박임순 (76국교) 409- 9772, 박종우 (81국교) 400-25 62

<진선여중>

▲회장=吳錦慶 (61법학) 수석 연구원 784-2569 ▲부회장=方秉武 (69경계) 기획과장 784-2569 ▲총무=白基順 (76국교) 409-25 62

<경상대학교>

▲회장=宋宗浩 (58경계) 567- 7839 ▲총무=白在根 (73교과) 567- 7839

<66東政會>

▲회장=成鎮慶 (64법학) 전축

업 856-9765 ▲총무=李誠真 (62법학) 경남여자상업학교학생 수임 212-9104

<66東政會>

▲회장=이인식 (61법학) 서울 시소방학교장 933-0119 ▲총무=김영희 (63법학) 유아원원장 (032) 421-3366

<東松會>

▲회장=成鎮慶 (64법학) 전축

업 856-9765 ▲총무=李誠真 (62법학) 경남여자상업학교학생 수임 212-9104

<東行會(81행원)>

▲회장=林成權 (80경계) 대진 대학교 대표 544-9180 ▲총무=李起憲 (72토목) 관리과장 546- 4446 ▲간사=金箕勳 (동아진설 (주) 기획실 과장 771-21.

<한국화학>

▲회장=이상복 (54국문) 국민

중 (67경계) 화체학과 교수 54- 8331

<學科·同期別>

<惠門會>

▲회장=趙大榮 (48문화) ▲총 무=李漢洙

<불교학파>

▲회장=金漢泰 (59불교) 모교 교수 267-8131

<國문화학>

▲회장=이상복 (54국문) 국민

<한국화학>

다음은 본회가 파악한 새 주소입니다.
 아직도 종우회모를 알아보 지 못하는 분들이 주위에 계시면 본회 사무국 (73- 3993)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화학>

다음은 본회가 파악한 새 주소입니다.
 아직도 종우회모를 알아보 지 못하는 분들이 주위에 계시면 본회 사무국 (73- 3993)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화학>

다음은 본회가 파악한 새 주소입니다.
 아직도 종우회모를 알아보 지 못하는 분들이 주위에 계시면 본회 사무국 (73- 3993)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화학>

다음은 본회가 파악한 새 주소입니다.
 아직도 종우회모를 알아보 지 못하는 분들이 주위에 계시면 본회 사무국 (73- 3993)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화학>

다음은 본회가 파악한 새 주소입니다.
 아직도 종우회모를 알아보 지 못하는 분들이 주위에 계시면 본회 사무국 (73- 3993)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화학>

다음은 본회가 파악한 새 주소입니다.
 아직도 종우회모를 알아보 지 못하는 분들이 주위에 계시면 본회 사무국 (73- 3993)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화학>

다음은 본회가 파악한 새 주소입니다.
 아직도 종우회모를 알아보 지 못하는 분들이 주위에 계시면 본회 사무국 (73- 3993)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화학>

다음은 본회가 파악한 새 주소입니다.
 아직도 종우회모를 알아보 지 못하는 분들이 주위에 계시면 본회 사무국 (73- 3993)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화학>

다음은 본회가 파악한 새 주소입니다.
 아직도 종우회모를 알아보 지 못하는 분들이 주위에 계시면 본회 사무국 (73- 3993)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화학>

다음은 본회가 파악한 새 주소입니다.
 아직도 종우회모를 알아보 지 못하는 분들이 주위에 계시면 본회 사무국 (73- 3993)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화학>

다음은 본회가 파악한 새 주소입니다.
 아직도 종우회모를 알아보 지 못하는 분들이 주위에 계시면 본회 사무국 (73- 3993)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화학>

다음은 본회가 파악한 새 주소입니다.
 아직도 종우회모를 알아보 지 못하는 분들이 주위에 계시면 본회 사무국 (73- 3993)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화학>

다음은 본회가 파악한 새 주소입니다.
 아직도 종우회모를 알아보 지 못하는 분들이 주위에 계시면 본회 사무국 (73- 3993)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화학>

다음은 본회가 파악한 새 주소입니다.
 아직도 종우회모를 알아보 지 못하는 분들이 주위에 계시면 본회 사무국 (73- 3993)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화학>

다음은 본회가 파악한 새 주소입니다.
 아직도 종우회모를 알아보 지 못하는 분들이 주위에 계시면 본회 사무국 (73- 3993)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화학>

다음은 본회가 파악한 새 주소입니다.
 아직도 종우회모를 알아보 지 못하는 분들이 주위에 계시면 본회 사무국 (73- 3993)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화학>

다음은 본회가 파악한 새 주소입니다.
 아직도 종우회모를 알아보 지 못하는 분들이 주위에 계시면 본회 사무국 (73- 3993)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화학>

다음은 본회가 파악한 새 주소입니다.
 아직도 종우회모를 알아보 지 못하는 분들이 주위에 계시면 본회 사무국 (73- 3993)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화학>

다음은 본회가 파악한 새 주소입니다.
 아직도 종우회모를 알아보 지 못하는 분들이 주위에 계시면 본회 사무국 (73- 3993)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화학>

다음은 본회가 파악한 새 주소입니다.
 아직도 종우회모를 알아보 지 못하는 분들이 주위에 계시면 본회 사무국 (73- 3993)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화학>

다음은 본회가 파악한 새 주소입니다.
 아직도 종우회모를 알아보 지 못하는 분들이 주위에 계시면 본회 사무국 (73- 3993)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화학>

다음은 본회가 파악한 새 주소입니다.
 아직도 종우회모를 알아보 지 못하는 분들이 주위에 계시면 본회 사무국 (73- 3993)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화학>

다음은 본회가 파악한 새 주소입니다.
 아직도 종우회모를 알아보 지 못하는 분들이 주위에 계시면 본회 사무국 (73- 3993)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화학>

다음은 본회가 파악한 새 주소입니다.
 아직도 종우회모를 알아보 지 못하는 분들이 주위에 계시면 본회 사무국 (73- 3993)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화학>

다음은 본회가 파악한 새 주소입니다.
 아직도 종우회모를 알아보 지 못하는 분들이 주위에 계시면 본회 사무국 (73- 3993)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화학>

다음은 본회가 파악한 새 주소입니다.
 아직도 종우회모를 알아보 지 못하는 분들이 주위에 계시면 본회 사무국 (73- 3993)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화학>

다음은 본회가 파악한 새 주소입니다.
 아직도 종우회모를 알아보 지 못하는 분들이 주위에 계시면 본회 사무국 (73- 3993)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화학>

다음은 본회가 파악한 새 주소입니다.
 아직도 종우회모를 알아보 지 못하는 분들이 주위에 계시면 본회 사무국 (73- 3993)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화학>

다음은 본회가 파악한 새 주소입니다.
 아직도 종우회모를 알아보 지 못하는 분들이 주위에 계시면 본회 사무국 (73- 3993)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화학>

다음은 본회가 파악한 새 주소입니다.
 아직도 종우회모를 알아보 지 못하는 분들이 주위에 계시면 본회 사무국 (73- 3993)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화학>

다음은 본회가 파악한 새 주소입니다.
 아직도 종우회모를 알아보 지 못하는 분들이 주위에 계시면 본회 사무국 (73- 3993)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화학>

다음은 본회가 파악한 새 주소입니다.
 아직도 종우회모를 알아보 지 못하는 분들이 주위에 계시면 본회 사무국 (73- 3993)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화학>

다음은 본회가 파악한 새 주소입니다.
 아직도 종우회모를 알아보 지 못하는 분들이 주위에 계시면 본회 사무국 (73- 3993)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화학>

다음은 본회가 파악한 새 주소입니다.
 아직도 종우회모를 알아보 지 못하는 분들이 주위에 계시면 본회 사무국 (73- 3993)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화학>

다음은 본회가 파악한 새 주소입니다.
 아직도 종우회모를 알아보 지 못하는 분들이 주위에 계시면 본회 사무국 (73- 3993)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화학>

다음은 본회가 파악한 새 주소입니다.
 아직도 종우회모를 알아보 지 못하는 분들이 주위에 계시면 본회 사무국 (73- 3993)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화학>

다음은 본회가 파악한 새 주소입니다.
 아직도 종우회모를 알아보 지 못하는 분들이 주위에 계시면 본회 사무국 (73- 3993)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화학>

다음은 본회가 파악한 새 주소입니다.
 아직도 종우회모를 알아보 지 못하는 분들이 주위에 계시면 본회 사무국 (73- 3993)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東英會

앞서가는

同門愛로 지켜온 "東友因緣 30년, 동국인의 궁지와 정으로 서로돕는 모임"

東英會는 영문학과 57년 입학동기와 61년졸업동기들이 주축이 되어 지난 70년에 발족된 모임이다. 그러나 군입대등의 사정으로 졸업이 늦어진 동문들도 학회를 재창설하는 소식이 화제가 됐다.

선후배간의 은정이 희발전의 근간이 돼

『국내외 동문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건 동국인 모두의 궁지』라는 학회상은 『우리보다 일은 동문들간의 情과 동국의 궁지로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천복체』라고 여기한다.

관호상제의 큰일에는 동문들 간의 뜨거운 관심과 봉사정신으로 함께 끌고 함께 듣는 게 동학회의 윤리이 여기까지의 기반이라는 尹炳燮동문의 설명이다.

57년도 입학동기서부터
67년도 졸업동기까지
동학회는 영문학과 동창회가 창립되기 전까지는 영문학과를 대표하는 모임으로서 각종 행사에 참여해 점도로 손석성이 대단한 회장을 맡았다. 게다가 회원들 모두가 50줄 넘긴 나이라 젊을 감안해 본다면, 동교에서 맨 많은 인연은 30여년이 지난 나도록 소중히 지켜온 동학회 회원들의 「同門愛」는 말로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뜻깊다.

현재 동학회는 이끌어오고 있는 회장은 崔明在(61년卒·매일유업(株) 비상기획실장) 등이다. 지난 85년 육군제 3사관학교 교수로 재직하다 전역(육군 대령)한 후 85년부터 회장의 세 번째 회장을 맡아오고 있다. 「이렇나 할 자랑거리도 없는 데...」 라며 취임 초기부터 극구 겸손해하던 崔회장을 찾아간 날, 무더운 날씨인데도 李海權(61년卒·경동기기사대표) 총무와 尹炳燮(63년卒·8949通信社 대표) 간사도 자리를 함께 했다.

그리고 얼마전 귀국했던 李善星(61년卒) 동문의 이야기로

갔다. 해외에 있는 동문이 귀국하면 환영회를 갖곤 하는데 캐나다 토론토서 「얼극단」을 운영하고 있는 李동문이 지난 6월에 방문했던 것이다.

그런데 李동문이 오는 8월 15일에 캐나다에서 최초로 한국어박속국을 개원한다는 소식이 화제가 됐다.

온 세월. 또 東英會 한울타리 안에 함께 모여 동고동락해온지도 20년。

한켠에서 회원명부를 적어주고 있는 李海權총무의 수첩 같고 깨알같이 써여온 바로 이것이 東英會의 끈끈한 결속력이자 언론이 아닐까.

◇회원명단

▲회장=崔明在(61년·매일유업(株)비상기획실장)

▲부회장=李真烈(62년·제주농원 대표·辛鎮基(63년·在美))

▲총무=李海權(61년·경종기업사 대표)

▲간사=尹炳燮(63년·8949通信社 대표)

▲회원=都昌會(62년·前교교수)朴恩澤(61년·성균관대교수)朴英模(66년)申元植(63년)

조치원여고 교사)沈敬模(61년·파리나이스루자개발(株) 전무)

유병열(〃·일우모터체인(주) 대표)

▲회원=都昌會(62년·前교교수)朴恩澤(61년·성균관대교수)朴英模(66년)申元植(63년)

조치원여고 교사)沈敬模(61년·

파리나이스루자개발(株) 전무)

유병열(〃·일우모터체인(주) 대표)

57 입학·61졸업동기 주축

"선후배간 결속력 대단"

同會는 적월간 정례모임과 1회 부부동반으로 갖는 애유회와 송년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유대를 돋우기 하며 특히 동문들 간의 경조사에서는 수시로 모여 「서로돕는 우의」를 다져오고 있다. 한편 同會는 이제부터 후배들을 위한 장학기금모금도 추진 중에 있어 동학회의 남다른 동문애를 모교발전으로 연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한다.

관호상제동 큰일에는 서로돕는데 앞장서

동교의 언덕에서 인연을 맺은지 30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표 柳熙春 (〃·고양 군청)尹永老 (〃·정화 무역(주) 대표)尹五鉉 (〃·삼정 환로)尹大正(〃·许天澤 (〃·교고교수)李炳煥 (64년·趙漢瓊 (〃·주택부) 대표)李鍾元 (62년·舛류디킨슨 한국지사장)趙雲海 (61년)최석 (〃·남 영나이론(주) 영업부장) 최학순 (〃·경창기업사 대표)

尹炳燮(63년卒·8949通信社 대표)간사

世界 속의 東國 으로 발돋움

모교는 현재 日本, 美國, 獨逸進等 3개국 7개교와 자매 결연을 체결하고 활발한 교류를 통해 세계적으로 우수한 대학들의 학문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모교가 가지고 있는 학문과 시상을 해외의 학계와 문화계에 전달함으로써 「東國의 세계화」를 추구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외자매교류 현황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교류 계획을 알아보기로 한다.

모교 海外자매교류 現況

모교는 지난 75년 9월 4일 美國 「베파인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은데 이어 지난 2월 22일 日本 「교도불교대학」과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전세계 7개대학과 교수·학생교류, 출판물·정보교환, 스포츠교류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1987학년도 교사를 최초로 실시하여 8명을 선정, 자매결연대학에 파견하는 등 본격적인 학생교류를 실시하여 해외유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재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모교당국은 앞으로 기획조정 실산하 「국제부」의 기능을 보강하여 더욱 활발하고 구체적인 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모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대학과의 교류현황은 다음과 같다.

◇ 메인대학

지난 75년 9월 4일 자매결연을 맺은 이 대학은 미국 메인주에 위치하여 1965년에 설립되었다. 지금까지 교수 및 학생교류와 연구자 출판물교환 이 있었으며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적 협조도 이루어왔다. 현재 보다 활발한 교류를 위한 협정체결준이 있다.

◇ 고마자와대학

일본도쿄에 있는 이 대학은 1892년에 설립된 불교종립대학으로서 일본내에서도 명문사학으로 통한다. 모교와는 지난 79년 7월 12일 자매협정을 맺어 불교·선학연구 교수 및 학생교환, 스포츠교류등을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현재 모교생 1명이 파견되었다.

◇ 다이쇼대학

1926년에 설립된 일본 도쿄 소재 불교종립대학으로 지난 80년 5월 2일 자매결연을 맺었다. 양교총장 상호방문, 교직원연수, 교수 및 학생교환, 도서교환 등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모교생 2명이 파견되어 있다.

◇ E.W대학

미국 애신던주에 자리잡고 있는 개교 1백 6주년의 이스턴 와싱턴대학과는 지난 80년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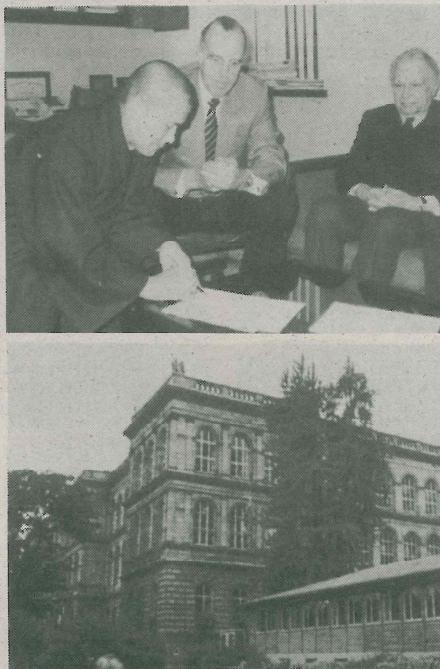
세계적으로 우수한 大學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모교는 앞으로 이들의 교류를 활성화해 世界 속의 東國을 만들기 위해 계획이다. (사진은 美國 UCLA와 자매 결연 협정체결모습)

고마자와大·UCLA 등 7個校와 자매결연 실질적 交流증진으로 國際化시대 대비해야

25일에 자매협정을 체결, 교수·학생교류, 양교총장상호방문, 미술작품 교환전시회, 야구부원정, 학제경영세미나등 매우 활발한 교류를 해오고 있다. 현재 모교생 2명이 파견되어 있으며 오는 9월 金基基(수교교수)교수가 교환교수로 파견될 예정이다. 현재 모교 R.O.Hamel(전 산과)교수와 학생 2명이 파견돼 있다.

◇ U.C.L.A.

캘리포니아대학 (UCLA)은 미국 로스엔젤레스 위치한 동



양학연구의 명문으로 1919년에 설립되었으며 모교와는 지난 해 2월 13일 자매협정을 체결했다. 학생수 3만 4천명 도서장서가 5백 20만권인 이내대학과의 주요 교류내용은 교수·학생교환을 비롯 합동심포지움, 조정강의회 등이며 오는 9월 노교생 2명이 파견될 예정이다.

◇ 레겐스부르크대학

지난해 7월 16일 독일의 대학과는 첫 자매결연을 체결했는데 유럽지역 대학과의 교류에 있어 교부보 역할을 할 것

으로 기대된다. 양교총장과 실무책임자가 상호방문하여 구체적 협정계획을 세웠으며, 주요 협정 내용은 교수 및 학생교환, 교육자료 및 출판물 교환등이 되고 있다. 현재 모교생 1명이 파견돼 있다.

◇ 교토불교대학

일본 교토불교대학과는 지난 2월 22일 자매결연을 공식체결했다. 협정내용은 양교교수의 교원과 연구원, 학생의 상호교환과 학술회의 교환개최, 출판물의 교환등이다.

會費…1년에 1만원

협조를 바랍니다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同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뜨거운 격려 속에 지난해 同窓會館 건립의 밀바탕이 될 사무국 이전을 비롯, 컴퓨터도입으로 사무자동화를 이루는 등 同窓會가 거듭 발전하고 있음을니다.

同門 여러분께서 내주시는 年會費는 동창회관건립과 후배들을 위한 장학기금등 東國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에 쓰이게 됩니다.

회費납부에 동문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東國大學校 總同窓會 事務局

◇ 회비내역

- 一般會費… 1만원
- 理事會費… 5만원
- 常務理事… 20만원
- 단체회비… 회원수 대로
- 해외동문회비… \$ 20
- 監事… 20만원
- 副會長… 50만원
- 會長… 100만원

◇ 남부안내

- ① 은행지로이동 남부
- ② 저회주시면 밤부남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本會사
- 무국(733-3991~3)으로 문의 바랍니다

桃園꽃집

화환·꽃바구니
생화·신부화
화문·동·서양란

TEL: 266-4571
야간: 602-4806

대표 辛承水 (72 경영)

서울·중구 충무로 4가 125-1
진양빌딩 3층 42호

체신부 通信工事면허업체

七字電子通信公社

TEL: 273-4048 (代)

- 각종 通信設備 유지 보수
- 각종 通信機器 제작 및 설치
- 전자식 자동교환기 및 키-폰
- FAX·TELEX, 인터폰, MDF 설치
- 컴퓨터 및 SOFTWARE 용역

대표 趙椿煥 (74 경영)

중구 을지로 4가 315-1 무광BD 510호

교소식

제 2학기 開講 8월 22일
학내시정으로 인하여 예정 대로 실시하지 못한 88학년도 제 1학기 기말교사 및 학사일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 제 1학기 기말교사 : 8월 16일 ~ 8월 20일 (전공과목은 담당교수 재량으로)

▲ 제 2학기 수강신청 : 8월 18일 ~ 8월 20일

▲ 제 2학기 개학(개강) : 8월 22일

▲ 제 2학기 등록기간 : 8월 18일 ~ 8월 27일

「민주동아 어민학교」開設

모교 총학생회에서는 모교생들이 민주교육의 장으로서 민주화와 민족통일의 참일꾼으로 일어서기 위해 「민주동아 어민학교」를 개설하였다.

8월 1일부터 7월 까지 실시되는 여름학교의 학습 형태는 역사·경제·농민·여성등 각 분야별 강의, 심포지움, 시청각 교육 등이며 정규 시간 이후 매일 문화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다.

夏季農活, 충북 제원군에서

모교생 2백여명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충북 제원군 일대에서 하계농활을 실시하고 농촌인 손돕기와 농민과의 대화 등을 갖었다.

「農林科學論文集」 발간

「農林科學論文集」 제 12집이 모교 농림과학연구소(소장=朱宗桓교수)에서 발간됐다. 이번에 발간된 논문집에는 「韓·美간 농산물 주여마찰과 대응책」 등 총 7편의 논문이 실려있다.

慶州, 제 2회 始林문화상

경주캠퍼스 始林文化展위원회 주최 「제 2회 始林문화상」의 시부문에 이태희(인천대 국문 4) 양의 「經泰소(經泰小)」가, 소설부문에 이선희(경상대 한문 4) 양의 「 늦은 등교 」가 각각 작품을 수상했다.

동국문화의 전통체계과 대학생들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자 기획된 작품에 대한 평가와 함께 작품에 대한 평가를 수상했다.

미국내 최초의 「한국학과」 설립

스토니브룩 뉴욕주립대학교 교수 朴性培동문

스토니브룩 뉴욕주립대학교교장
교학과 교수로 재직중인 朴性培(58 철학)동문。

불교학술회의에 참석자 잡시
귀국한朴동문은 미국내 최초

이어朴동문은 한국학에 정식 학위가 인정되는 한국학과 개설을 추진해, 지난학기부터 8개의 한국학에 관한 강의를 시작함으로써 「그늘」에 허친 우리文化와 思想, 歷史 등에 빛을 비춘 것이다.

스토니브룩 뉴욕주립대학에 개설된 한국학과는 학부와 대학원, 독자적인 교수진을 갖추고 있고, 碩·博士학위를 수여할 강좌를 개설할 수 있는 독립된 학과로 발족되었다.



▲ 朴性培 동문

클로즈업

의 「韓國學科」(Korean Studies Department)를 탄생시킨 숨은 주역으로서 매스컴으로부터 화제의 인물로 각광을 받았다.

하버드대, 버클리대, 또는 하와이대에서도 한국학에 관련된 강의과목이나 연구소는 설치되어 있지만, 이를 대체내에서의 한국학연구는 대개 연구구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이나 중국학의 그들에 가려져 온게 사실이다.

교민 誠金으로 기금 마련 "同門도움에 감사"

美대학내 한국학 연구기지로

『최초라고 해서 다 앞서가는 것은 아니고, 장래를 희망적이라고 보는 것도 성급한 판단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내학회는 그(기금)을 기지하고 사람을 모으지만, 우리 한국학과의 경우는 한국학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모인 다음 기반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잡자리 이 무한한 거지요』

미국내 일반대학에서 하나의 학과를 새로 개설하는데 약 3백만달러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한다.

그러나朴동문의 학문적 열정은 10여년에 걸친 교민사회

의 정성에 성과와 대학당국의 배려로 마침내 미국내 「한국학 연구기지」의 뿌리를 내린 것이다.

朴동문의 이같은 노력은 이대학에 부임한 77년 9월부터였다. 69년까지 모교 인도대학과 주임교수로 있던 그는 미국유학의 길을 나서 버클리대학에서 불교학박사 학위를 땄다.

스토니브룩대학의 종교학과 교수로 부임한朴동문은 그가 연구해온 「원효사상」에 대한 연구나 세미나를 열었는데, 바로 이것이 큰 폭에 되었다.

『그 세미나는 서구의 학자들에게 큰 충격이었나 봅니다. 7세기에 우리에게 원효라는 위대한 사상가가 있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었지요』

이때朴동문은 훗날 도움을 주는 두사람의 후원자를 만나는데 한사람은 말부르거 총장이었으며, 또 한사람은 인디우드

에게 됐다.
『모교액수보다는 훨씬 못미치지만 순수한 교보의 일로 한국학과를 세운다는 긍지, 교포들의 협조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학과가 안은 시급한 문제는 한국문화와 예술·사회사를 강의할수 있는 유능한 교수진을 확보하는 것과 장학금을 마련하는 것.

하지만 한인사회의 역량은 이를 충분히 보충할 것으로 전망하는 박성배동문은 『지금까지도 외주신 분들에는 모교출신동문들도 많다』며 초기의 어렵던 시절에 결정적 역할을 해준 뉴욕원각사 주지스님인吳法眼(행원·前莫교부총장) 등분들을 가고마음을 표현한다.

『특히 동국대 동문과 불교인은 한국학과 설립의 숨은 공로자』라고 말한朴동문은 뉴욕주립대에 심어놓은 한국학의 씨앗이 민가 할수 있도록 주위동문들의 성원을 기대한다고.

이제 그의 계획대로라면 2천년에는 뉴욕주립대에서 배출되는 한국학박사는 20명 정도. 우리의 진풍劲화가 경신문화의 영광이 짚은 미국에 문학적으로 뜻깊게 되며, 우리 문화의 새 지평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2~3년 정도 더 힘쓰면 기틀이 다져질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못한 저술에 전념해야지요』

누군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 아니라 감상해하는 朴性培동문. 그는 金鎖会(57 철학) 동문과 결혼한 동문부부로 슬하에 2女를 두고 있다.

연락처 : Korean Studies Department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

Stony Brook, N.Y. 11794-3725, USA

“수박으로 전해오는 동문소식”

事務局의 수박후가

○…한여름으로 접어든 요즘 본회 사무국은 수박과 풍물이 심심치 않게 열리고 있는데 이유인즉 본회에 찾아오는 동문들 대개가 수박한 덩이식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동국인명록 제작으로 바쁜 사무국 직원들의외에서는 때마다 「수박굴러오기」로 수박후기를 맞고있는셈. 이어 본동동동자 한갈증『여름이면 뜰해지는 동문소식, 「수박굴러오기」처럼 한울을 씌 자주자주 전해주시길…』

「同門시창」에 유의를…

○…연예행사처럼 뻐버린 동문을 사친한 불미스러운 일이 요즘도 일어나고 있어 본회 사무국은 난감한 실

정.

최근 모교 「80주년기념사업회」라든지 「총동창회」를 빙자해서 책을 판매하고 있는 일



동동국대 동동창회동물작임

역시 최선의 퇴치법은 항상 본회로 연락, 真偽를 가리는 길바닥에 없을듯.

후배동문에게 취업기회를

○…요즘 모교 도서관에는 불법미위에도 아랑곳 않고 예비동문인 4학년생들이 입사시험에 대비해 학업에 전념하는데…

그러나 이들의 표정이 밝지만은 못한것은 최근의 취업난으로 求職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라고.

本 東同動子는 곤란한 東國愛로 끊임없이 8만동문이

앞으로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우수한 모교생들이 사회각계로 진출하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줄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있어 각계동문들의 불평을 사고있는 일이 그것. 「얼중합의」밖에 할수없는 본회사무국의 처지이고 보면

“卒業앞둔 모교생에 同門企業 관심필요”

「너의 들판에…」

文貞姬 著

평소 여성문학의 맥을 찾는데 노력해온 여류시인 文貞姬(70국문)동문이 새월속으로 문려가는 청춘을 되씹는 시와 산문을 모아 「너의 들판에 바람꽃으로」를 펴냈다. <동문선Pub>

「숨은 꽃」 金杠泰 著

78년 「한국문학 신인상」에 당선, 문단에 데뷔한 金杠泰(79국문)동문이 존재위기 의식을 諧化한 이번 시집에는 23편의 연작시 「백제시원」 등 65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문화출판 刊>

<문화세계사Pub>



現代自動車(株)

현대인이 선택하는
정상의 승용차!

“Y2소나타” 판매개시 2,000t

판매과장 : 柳在善
(70경동·ROTC 8기)
TEL 274-3103~7
아전 914-6584

信一金属센터(株)

활동판·동판·활동파이프
동판지붕재·비철금속

대표이사 金鍾葉(84경원)

본사 : 서울 동대문구 을두동 255-58
☎ 924-6662, 924-6363

全國 林野·상가·빌딩 상담 및 안내

公認仲介士 정종칠事務所

公認仲介士 鄭宗喆(86경원)

• 全國不動產仲介業協會理事

• 城東區公認仲介士會長

전화 : (A) 234-4777, 253-9321 (B) 233-5799
서울 성동구 을수동 243-35(극동아파트 정문앞)

BOSCH SUPER

Cu-Electrode

thermo plastic



수입원 : 洋陽商事 (대표 : 沈載錄·65경영)
TEL : (02) 213-1392/3107 아프터서비스 244

世進家具有工芸店

TEL : 736-7887, 2311

- 가정용 가구 代表 金文煥 (64 경외)
- 사무용 가구
- 혼례용 가구 서울 종로구 교남동 61-2
(서대문·독립문 중간)

생일이면 떠오르는……



新羅 明과

“실속있고 품위있는 선물을 원하십니까?”

소비자 상담실 863-4040

대표이사 홍평우 (70경영)

洪性裕 人生劇場

將軍의 아들

* 전 6권 완판!
출간 170회 만에 250,000부 돌파!



“
무장독립군으로
일본군을 대파한
백야 김좌진 장군.
그 빛나는 아버지의
위업에 도전하는
주먹황제 金斗漢의
끝없는 투쟁의 기록!
”

朝鮮日報 연재소설

홍성유 인생극장 (將軍의 아들)
폭발적인 화제 속에 전 6권 완판!

홍성유 인생극장 (장군의 아들)은 우리 시대의 신화적 인물 金斗漢을 주인공으로 흥미 진진하게 펼쳐 나가는 사회소설이다. 압울한 현실에 대한 분노와 정방감으로 시종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는 이 소설은 박진감 넘치는 사건전개, 갈팍한 입담, 생생한 인물 묘사를 통해 소설의 참매미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金佐鎮 장군의 아들 金斗漢은 임꺽정의 배경과 동기호테의 전지한 대부의 근성으로 빼앗긴 땅에서 주먹개의 황제로 등극, 日帝의 무리들을 한손에 쥐고 뒤흔들며 민족혼을 불태웠던 情義 님치는 仁漢으로, 패비번는 자이 보호자로, 드디어는 政界의 거물로 격동의 한국 근대사에 우뚝섰던 우리 時代 가장 늄름한 대장부이며 대自由人이었다.

방대히 자료를 토대로 작가가 아심적으로 기상천외한 행위를 연출하면서 우리를 기막힌 인생무대로 초대한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속도감 있게 전개되는 드라마틱한 사건들은 우리가 걸어온 근대 정치·사회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인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일깨우고 있다.

日帝의 무리들을 한 주역에 쥐고 뒤흔들었던 격동의 시대 풍운아들의 극적인 삶과 죽음! 물분 속의 기행과 폭력, 뜨거운 애정과 의리! 한국 근대사의 생생한 모습 (將軍의 아들)!

野史에도 정직에도 가혹되지 않은 술한 사람 들, 이땅을 강탈한 일본 아류자 그 거리를 배회하는 거령백이, 겁내부들, 민족 수난의 악혹기에 상처받은 자들과 함께 하며 자유와 정의의 편에 서서 눈부시게 활약했던 金斗漢이 비인간화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던지는 긴 감동의 과문!

* 전 6권 / 국판 각권 300면(나와) / 각권 값 3,300원 * 남권판매 * 서점에 있습니다.

northwest

**미국여행—
만족스러운 여행을
약속드립니다.**

노스웨스트에서는 더 많은 미국도시로
모셔드림은 물론 최소 미화 229불로
북미노선을 마음껏 이용하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먼저 노스웨스트의 USA 패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신 후 가시고
싶은곳, 계획했던 여행을 시작하십시오.

더 많은 미국도시를 만족스럽게
여행하시려면 노스웨스트나 여행사로
전화만 주십시오. 그리고 곧바로 여장을
꾸미시면 됩니다.

USA PASSES

LOOK TO US NORTHWEST AIRLINES